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연중 제16주일(농민 주일) 2016.7.17.(다해) 제2007호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ubo.or.kr>



범물성당 감실 부조(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마르타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루카 10,38,42)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이며 농민 주일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현대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형제들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섬기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가난한 이들이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중드는 일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제1독서 창세 18,1-10

제2독서 콜로 1,24-28

복음 루카 10,38-42.

입당송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시다. 저는 가까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화답송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영성체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뒤통수치지 않고, 필요시 직접 충고하겠습니다.”



참으로 필요한 것은 한가지뿐입니다

이태우 프란치스코 신부 | 교구 병원사목부장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만남을 통해 원목 사제로서 배우고 얻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고통의 여정이 때로는 가슴 아프게, 때로는 안타깝게 다가오면서 지금의 내 삶에 대한 성찰과 하느님의 따스한 손길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투병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의 삶은 그 자체로 아프고, 힘겨운 나날들이지만 그분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을 겪고 계시는 하느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체험 가운데에서 저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었던 하나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직장생활을 하던 A씨는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결혼을 준비를 하던 중, 몸에 이상이 생겨서 검사를 했는데 자궁암 말기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물론, 함께 할 배우자 D씨 또한 너무나 큰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청난 시련에 힘이 들었지만 현실은 그들의 시간과 마음을 더욱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00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두 사람은 함께 손을 잡고 눈물로써 서로를 위로하던 가운데, 결혼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을 원목사제인 제계 전화로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남편 될 사람의 이야기인즉슨, 처음에는 아내인 환자분이 결혼식 하는 것을 심하게 반대했지만, 남편의 끈질긴 설득으로 결혼식을 하기로 했으니 주례를 부탁한다고... 안타까운 마음과 애절함이 목소리에 담겨있어서, 다음날 호스피스 병실에서 혼배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사제로 살

면서 성당에서 솔하게 혼배 주례를 해왔지만 병원에서, 그것도 호스피스 병실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지인들, 증인들, 원목 수녀님, 호스피스 팀장이 작은 병실을 가득 메운 채 혼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실 안은 엄숙함과 더불어 비통함으로 그야말로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저 또한 신랑 신부가 반지를 교환하고 “하느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합니다.”라는 사제의 기도를 목이 메여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몇 번이고 반복을 하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새신부인 환자는 “행복해요... 그런데 신부님, 우리 오빠가 너무 불쌍해요.”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주위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두 분의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문득 어느 노래 가사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행복이란 저 멀리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와 네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소중한 가르침을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자매는 이승에서의 마지막을 함께 했던 귀한 배우자와 가족들을 위하여 하느님 품에서 기도하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름다운 두 분의 사랑이 지금도 제가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 제 마음 안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가지입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더 있다가는 늦어요. 지금 고백하세요.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필로**

제21회 농민 주일 담화문(요약)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농민 주일을 맞이하여 하느님 창조질서 보전에 앞장서고 계신 농민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시길 빕니다. 또한 지난해, 쌀값 인상을 요구하다 공권력에 의해 의식을 잃은 백남기(임마누엘) 형제의 빠른 쾌유를 빌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농민은 자연과 협력하여 땅을 일구며 생명을 살리는 하느님의 창조질서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인 농산물시장 개방과 세계화의 진행으로 농촌 공동체는 파괴되어 가고, 농업은 더는 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만, 농민의 살길은 점점 막막해져 갑니다.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국민의 안전과 자연 생태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찬미반소서』, 134항 참조) 우리의 인식과 대처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 농민들을 보호해야 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 내 소리를 들어라.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날마다 밭만 갈겠느냐? 줄줄이 밀을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가장자리에는 귀리를 심지 않느냐? 이렇게 하느님께서 그에게 법칙을 일러 주시고 그를 가르쳐 주신다.”(이사 28,23-26 참조)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농민들은 생명을 위해 묵묵히 땅을 일구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통해 농촌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교회의 모든 기관과 시설, 사제관과 수도원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밥상 차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에서는 농산물 직매장이 더 많이 생기도록 노력하고, 교우들은 식생활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특히 쌀값 하락으로 고통 받는 농민 형제자매를 위해 쌀로 만든 떡이나 빵, 과자, 음료 이용하기, 아침밥 먹기 등 쌀 소비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밀과 쌀을 감사하게 먹음으로써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새롭게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농부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축복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2016년 7월 17일 제21회 농민 주일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 흥 식 주교



과시의 수단이 되는 우리의 자동차 문화

조재근 마르코 신부 | 교구 경찰사목담당

오늘날 도시사람들은 매일같이 출퇴근길 정체와 주차난을 겪으며 삽니다. 그렇지만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 중 대다수가 중형 이상의 기다란 세단들과 덩치 큰 에스유브이(SUV) 차량들입니다. 놀랍게도 작년 독일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 B사의 최고급 대형 세단의 세계 시장 판매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급스럽고 커다란 자동차를 유난히 선호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지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평소 자동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해외에 가게 되면 어떤 차들이 도로를 활보하는지 유심히 보게 됩니다. 이웃 나라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작은 경차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중에 3분의 1이상이 경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소형 해치백을 많이 탑니다. 브라질 사람들도 소형차를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차와 소형차의 비중이 매우 낮으며, 실용적인 해치백이나 왜건들은 좀처럼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자동차를 선택할 때 실용성과 활용성 보다는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중년의 나이에 회사에서의 위치도 있고 남들 보는 눈도 있어서 최소한 중형 세단 이상은 타야한다는

식입니다. 유난히 타인에게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 때문에 자동차가 하나의 과시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동차를 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연봉과 직업까지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 위에서도, 고급 식당과 호텔 앞에서도 차별대우로 나타납니다. 소형차보다 고급 승용차가 비교적 차선변경이 수월합니다.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고급 승용차가 끼어들 때 양보를 더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형차가 고급 식당이나 호텔 주차장에 들어올 때와 고급 승용차가 들어올 때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 서간의 말씀입니다. “가령 여러분의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걸친 사람을 쳐다보고서는 ‘선생님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당신은 저기 서 있으시오.’ 하거나 ‘내 발판 밑에 앉으시오.’ 한다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야고 2,2-4)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 방한 하셨을 때 작은 자동차를 이용해서서 화제가 된 것을 기억합니다. 도로 위에서 저렴하고 작은 차라고 무시당하거나 위협당하지 않고, 고급 식당이나 호텔에 가더라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



재미있는 교회 상식

피정(避靜)

가톨릭 신자들이 영성 생활에 필요한 결정이나 새로운 쇄신을 위해 일정기간 일상에서 벗어나 고요한 곳에서 묵상과 성찰 기도 등 종교적 수련을 하는 일을 ‘피정(避靜)’이라고 합니다.

‘피세정념(避世靜念)’ 또는 ‘피속추정(避俗追靜)’의 줄임말인 피정은 원래 그리스도교 이전부터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단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셨던 일(마태 4,1-2)을 제자들이 본받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피정이 공식적으로 소개된 것은 16세기에 이나시오 로올라 성인께서 쓰신 『영신수련(靈身修鍊, Exercitia Spiritualia)』이란 책을 통해서입니다. 이 책에서 실제적인 피정의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1548년 바오로 3세 교황님에 의해 정식 인가 되었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과 빈첸시오 드 폴 성인께서는 피정의 강력한 옹호자가 되기도 하셨습니다. 1922년 비오 11세 교황님은 이나시오 로올라 성인을 피정의 주보성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피정의 장소로는 주로 성당이나 수도원 피정의 집 등이 이용되는데, 17세기에 이르러 피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동안 머무르며 지도자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피정의 집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9세기부터는 성직자들을 위한 연례피정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교회법상 성직자들은 최소 3년에 1회, 수도자들은 연 1회를 의무적으로 피정에 참가해야만 합니다.

피정은 참가자의 수에 따라 단체피정과 개인피정, 참가하는 사람들의 신분에 따라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피정으로 나누어지며 평신도의 피정은 참가자의 나이와 성별, 직업 등에 따라 세분화되기도 합니다.

피정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침묵 속에서 묵상, 성찰, 기도, 사제나 피정지도자의 강의 등으로 이루어지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만남(encounter)’과 ‘대화(dialogue)’ 등의 새로운 방법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피정은 가톨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1856년에는 영국 국교회가 ‘옥스퍼드 운동’으로 인하여 피정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대구대교구에서는 불교의 템플스테이처럼 ‘소울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인들에게도 그 기회를 제공하여 굳이 종교적 신념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격려와 영혼의 위로를 통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충전기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



교구 행사

■ 장신호 요한 보스코 보좌주교 서품식



사진제공 : 가톨릭신문



사진제공 : 가톨릭신문



사진제공 : 가톨릭신문

장신호(요한 보스코) 보좌주교 서품식이 7월 12일(화) 오후 2시 교구 100주년 기념 주교좌 범어 대성당에서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안드레아) 추기경,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히지노) 대주교 외 한국 주교단과 교구 사제단, 수도자, 평신도 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대교구 보좌주교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했다.



미사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7월 18일(월) 10:30 범어성당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7월 18일(월) 11:00 순례자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7월 18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7월 21일(목) 10:00 평화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18일(월) 11:00 죽도성당	-	-

성소 | 피정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여름 성소 피정

중고등부(자전거바퀴): 8.8(월)~10(수)
 일반부(Pen바퀴): 8.12(금)~14(일)
 주제: 그분에게로 달려갑시다
 문의: 도분도 신부, (010)4592-4560

마리아 영성 피정(성체현사·미사안수)

일시: 7.20(수) 13:00~16:30
 8.17(수) 13:00~16:30

장소: 삼덕성당

지도: 강요셉 신부 / 문의: 422-6691

예수마음 일일 피정

일시: 8.1(월) 10:00~17:00
 주제: 자녀와 봉헌

지도: 권민자 수녀, 여영환 신부

문의: 한티피정의집, (054)975-5151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기간: 8.5(금) 13:00~7(일) 16:00
 대상: 중고·대학생·일반(35세 미만)
 회비: 3만원 / 문의: (010)6309-1987
 truth1085@hanmail.net

향심기도 피정

기간: 8.16(화)~18(목) 2박 3일
 대상: 향심기도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

피정비: 12만원 / 문의: 평화계곡피정의집(소울스테이), (010)5332-7587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 한라산, 미사, 기도, 강의
 기간: 7.25~28 / 8.1~3 / 8.5~8.10~12 / 8.14~16 / 8.18~20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교육 | 모집 | 기타

바오로딸 행복한 책임기

일시: 7.27(수) 19:30~21:30
 장소: 바오로딸서원 2층 교육장
 내용: 자아성숙과 인간관계 발전
 대상: 40~60대 / 10주간(12만원)
 신청: 장그라시아 수녀, (010)7449-1117

프란치스코 사도행전 성경공부 모집

기간: 8.31(수)~12.1(목) 매주 수·목
 장소: 프란치스코눔(월배수도원 뒤)
 강사: 강주현(사도요한) 신부
 문의: (070)4266-0047 / (010)9100-4114

5차원전면학습코칭리더십 특별과정

기간: 45차 8.1(월)~3(수)
 장소: 구미선산청소년수련관
 대상: 초·중·고·대학생(선착순 30명)

참가비: 28만원 / 다음카페: 유아청
 문의: (010)3883-7004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난타·고전문용, 동화구연2급, 오카리나, 수지침, 원어민영어, 필라테스, 발성법, 가곡성가, 하모니카성가, 미술심리상담2급, 시 창작, 왕초보관광영어, 제대사범 꽃꽂이, 클래식기타 / 신청: 254-6115

상담전문봉사자 모집

대상: 상담학과 전공자, 교육이수자
 내용: 가정·아동·폭력 행위자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등
 문의: 대구서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38-3778 / 638-8778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우리 아이들 어떤?

한영한마음 아동병원

손찬락(라파엘) 병원장의 의학박사

평 일 : 09:00 ~ 19:00
 토 일 : 09:00 ~ 19:00
 * 병원운영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영한마음 아동병원

 대구광역시 중구 동대문로1길 10-1
 (동대문역 5번 출구)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 · 대장내시경 · 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노 · 고혈압 소화기 · 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미소인치과

원장 이 종 현(프란치스코) 송 선 희(안나)

지하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 **053)752-7575** **회원**
 www.misoindental.com **바인전보**

척추 관절 중점 병원

척척병원

 WISE MAN Hospital - Spine & Joint

정형외과전문의 **곽 은 석(더모테오)**
 신경외과전문의 **신 철 식(요한)**

T. 053)718-7700 www.wisemanhospital.com
 대구 북구 읍내동 1208-2 (칠곡시장 맞은편)

Legend of Royal
Rex Diamond
 더렉스 대구갤러리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 · 핸드메이드 디자인 가능)
 대표 임 미 순(마리아)

♥ 고통쪽 동아백화점과 시청 사이 ♥
 (동아주차 무료)

☎ **053)428-7989** | **010-4439-9991**
 고객님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신랑각시 결혼정보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의사, 약사, 교사 환영
 이 원 교(요안나) | 20년 경력

(053)471-0707 · 476-1400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 **(053)257-8875**
 www.kisaneye.co.kr

성누가종합내과외과
 (구.성누가의원)

위 · 대장내시경
건강검진센터(공단검진, 5대암)

원장 이만식(루카) · 원장 서영익(미카엘)

2호선 경대병원역 1번 출구 앞 2층
 ☎ **053)255-3134**

행사 | 모임

성령봉사회 2박 3일 성령 세미나

기간: 7.29(금) 14:00~31(일) 17:00
 장소: 월막피정의집(대구성령봉사회관)
 신청비: 12만원
 (차량운행비 별도: 1만원)
 신청: (054)954-0951 / (010)4461-4419

고성성당 새성전기금 마련 뮤지컬 공연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기회로 초대
 기간: 9.23(금)~25(일)
 장소: 오페라하우스
 제목: 서울할망 장난주
 문의: 352-1421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7.18(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교육 | 모집

시니어 평생대학 봉사자 프로그램 연수

기간: 8.8(월)~29(월) 매주(월), 3주
 장소: 교구청 교육원 나동
 마감: 7.24(일) / 참가비: 3만원
 문의: 교구 노인사목담당, 250-3077

오르간 성악 지휘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대구ME주말_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343차 ME주말: 7.29(금) 19:00~31(일)

344차 ME주말: 8.12(금) 19:00~14(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부부는 작은 교회입니다.

매일가든 입주업체 모집

모집: 매일빌딩 11층 매일가든
 우대조건: 뷔페 및 식당 유경험자
 마감: 7.22(금)
 문의: 매일빌딩 관리실, 251-1680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천연비누·화장품, 동화구연·시낭송·지
 도자, 우쿨렐레, 바이올린, 성가반
 주법, 오키리나, 플루트, 뗏생·유화·
 수채화, 성인생활영어회화, 통기타
 문의: 476-6211(지하철 교대역)

장례지도사 무시험국가자격 교육생 모집

야간반(30명): (토) 13:00~19:20
 (일) 13:00~21:20 (월, 수) 18:30~22:20
 개강: 9.3(토) / 대상: 20세 이상
 학력, 남녀 제한 없음
 문의: 대가대장례교육원, 555-4404

채용 | 안내

성바오로청소년의집 사회복지사 채용

기간: 7.17(일)~30(토)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방문, 우편
 (경북 군위군 부계면 가호1길 118-22)
 문의: (054)382-2834

(복)데레사소비센타 직원 채용

모집: 관리부 여직원, 계산대
 서류: 이력서, 등본, 교적사본(해당자)
 마감: 7.31(일) / 내사 접수
 문의: 765-1500

부산교구 분도명상의집 주방 직원 채용

우대조건: 뷔페 및 식당 유경험자,
 주거 가능 / 서류: 이력서(사진 첨부)
 접수: (051)582-4573 / (010)6650-4574
 bundobusan@naver.com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박은주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http://cord.fatima.or.kr>
 문의: 959-8883 / 940-7126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6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2016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판매가: 5천 원 / 609쪽
 구입: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7~9

일본성지순례
 우쿠오카, 이라도, 나가사키 (3박 4일)
 ※출발일: 10월 26일, 11월 23일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 열 레(유스티노) 홀 미 최(안젤라)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T. (053)255-9077
010-9447-5193

참소중한당신 정신과
 PSYCHIATRY CLINIC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보살펴 드립니다."
 우울증/불안/불면증/정신의학적 상담
 원장 정신과 전문의 차 상 훈(다니엘)
TEL. 053)752-2351
 동구시장 삼거리, 수성도서관 맞은편

미소나리 출장뷔페
 미소나리
 애식뷔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뷔페
 대표 양 애 향(마리아)
 사회적기업 (주)서구웰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리.kr>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역임
 대한 뇌진동 학회장 역임
 대구 강북치매 연구회 회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T. 053)252-0418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장 장윤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반역기(마오로) 010-3514-3855

스피치킴 교육
 리더십&발표력&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리젠테이션, 입시·취업 면접, 화술·화법
 대상: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 프라자 옆) T.053)421-0213
NAVER 스피치킴 **김민지(사바나)**